

‘외식보다 편한 집밥시대’ 음식 소비 트렌드 바꾼다

‘2시간 배송’ 롯데마트 수완점 일 평균 708건...주문건수 374% ↑
상반기 일반 식료품 카드지출액 광주 1726억원·전남 2180억원
음식점 카드 매출 광주 5608억원·전남 7180억원 2년 전보다 15% ↓

집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음식 소비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2년 새 광주·전남 음식점 지출이 2300억원 넘게 줄어든 반면, 지역 대형마트의 식료품 배송주문은 4배 가까이 늘었다.

9일 롯데마트 수완점에 따르면 주문 뒤 2시간 안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배송’을 운영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점포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온라인 주문 건수는 189건에서 708건으로, 3.4배(374%) 늘어났다.

롯데마트 수완점이 한 달 동안 ‘바로 배송’ 구매 현황을 분석해보니 평균 구매금액은 1건당 4만원 정도였다.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구매품목은 생수, 라면 등 가공식품과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이 주를 이뤘다.

롯데마트 수완점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주문 2시간 안에 상품을 배달해주는 ‘바로 배송’을 도입했다.

배송 지역은 점포 반경 9km 이내 광산구 7개동(수완·장덕·운남·흑석·산정·신장·신가동)이다. 빠른 배송의 장점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롯데 측은 전했다.

배송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도입 초기 27개에서 9월 현재 68개로 늘었다.

주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는데, 주문 대부분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몰린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상품을 동일하게 2시간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는 건 새로 도입한 유통 체계 덕분이다. 판매 공간 인근에는 주문한 상품을 검수·집하장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피킹 스테이션’ 3곳이 마련됐다.



9일 롯데마트 수완점 직원이 ‘2시간 내 배송’ 주문을 받은 식료품을 마트 진열대에서 고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75m 길이로 천장에 뻗는 통로를 통해 상품이 검수·집하장에 도달하면 냉장 보관 기능이 탑재된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소비의 급성장세 속에서도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장점을 극대화해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방침이다.

배효권 롯데마트 호남지역장은 “롯데마트 수완점이 위치한 수완동은 평균 연령이 32.3세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가 많은 점도 바로 배송 서비스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했다.

20~30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사이에서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집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서 식재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 식료품 카드지출액은 광주 1726억원·전남 2180억원 등 3906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15.7%(530억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상반기 일반 식료품 카드 매출은 2019년 3376억원, 2020년 3621억원, 올해 3906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올 상반기 지역 음식점 카드매출은 1조 2788억원(광주 5608억원·전남 7180억원)으로, 2년 전보다 15.5%(-2344억원)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올 상반기 음식점 카드지출은 2019년 1조5132억원, 2020년 1조4395억원, 올해 1조2788억원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중소기업 46% “납품단가 못올려”

납품 대금 전부 반영 6.2% 불과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올랐지만 납품 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7월 22일 9개 업종 중소기업 647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96.9%는 올해 공급원가가 지난해 말보다 올랐다고 답했다. 공급원가 평균 상승률은 26.4%였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는 응답 기업(631개) 가운데 45.8%는 납품 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은 6.2%였다.

업종별로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승강기(8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레미콘(59.9%), 비철금속 제품(54.4%), 가구(50.0%), 기계장비(48.0%) 등 순이었다.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인상 요청이 어렵다는 점을 든 곳이 54.7%로 가장 많았다. 22.8%는 거래 단절 등 불이익 우려를 들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5%에 달했다. 납품단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승강기’, ‘레미콘’ 업종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00%와 83.3%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급원가 상승에도 납품대금 인상에 비협조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 실태조사 업종으로 선별해 강력한 현장조사와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납품단가 인상 애로 업종을 중점 관리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건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은, 소상공인·중기 운전자금대출 6개월 연장

서비스업 한정 대출 한도 증액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는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

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전체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한은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원칙적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다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 성료



박찬호(오른쪽 두번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강형구(오른쪽 세번째)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이 지역 농축산물로 만든 추석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를 열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과 농협 광주본부는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 장터를 열어오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마당에서 열린 장터에는 광주 14개 농협과 광주축산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가 참여했다. 지역 우수농산물과 각종 과일 세트, 한우 선물 세트, 제수용품, 농협 목우촌 제품 등이 시중가보다 최고 30% 저렴하게 선보여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과 박찬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용 차장검사, 윤성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농산물 소비촉진에 동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